

<서귀본향본풀이>가 지니는 가치와 의의

권태효(국립민속박물관)

1. <서귀본향본풀이>, 왜 중요한 마을신화인가

서귀본향본풀이는 제주도 남단의 몇몇 마을에서 전해지는 당신본풀이이다. 곧 마을신을 모시는 신화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마을신화는 육지의 마을신화와 비교해서 남다른 면이 있다. 육지의 경우는 마을사람들이 마을신화를 전승시킨다. 마을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마을신을 모시게 되었는지를 곳을 주관하거나 제를 올리는 주민들이 구비로 전승시키는 형태이다. 곧 마을신화가 마을곳이나 제의에서 직접 구송 또는 연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로 전승시키는 형태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마을신화라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이차적인 마을신화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마을신화 곧 당신본풀이는 경우가 다르다. 심방이라는 사제자에 의해서 당곳에서 마을신의 근본을 풀어주는 당신본풀이가 불려지는 형태이다. 곧 제주도의 마을신화는 의례에 수반되어 그 신화가 불려진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신화로서 기능을 한다. 곧 곳을 통해 신, 심방, 신앙민이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마을신화는 특히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는 그 수요가 상당하다.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수록된 당신본풀이의 수요만 하더라도 585편에 이른다.¹⁾ 물론 동일한 당에 대해 여러 편의 당신본풀이가 채록 정리된 것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작은 제주섬에서 이 정도 수요를 보이는 것은 실로 엄청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제주도의 당신본풀이 중에서도 조종(祖宗)이라고 하여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것은 <송당본풀이>다. 송당의 백주할망과 소천국의 부부신은 제주도 당신의 조종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심방들은 흔히 “웃손당 금백조, 알손당 소로소천국, 아들애기 열여덟, 가지질소싱孫子 삼 백이른여덟”이라고 하여 상투적인 구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많은 딸과 손자녀들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 아들신들은 도내 사방에 퍼져서 좌정하여 유명한 당들의 당신이 되어 있다.²⁾ 아울러 백주할망과 소로소천국은 그 인물 성격이 제주도신화의 일반적인 남신, 여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 수렵 육식성을 보이는 남신과 농경 미식성을 보이는 여신의 성격은³⁾ 가장 기본적인 남녀신의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송당본풀이>의 이런 인물 설정 양상은 제주도 농경신화인 일반신본풀이 <세경본풀이>에도 영향을 주는 등⁴⁾ 인물이나 사건, 신화적 위상 등 여러모로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송당본풀이>는 후반부에 아들신인 괴뇌깃도가 해중무용담을 펼치는 등 그 스토리의 서사적 확장도 흥미롭게 전개되어 서사성을 온전히 갖춘 장편신화로서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⁵⁾

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2)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3) 진성기, 『남국의 무속』, 형설출판사, 1987.

4) 권태효, 「제주도 무속신화의 생성원천에 대한 일고찰」,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5) 장주근,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이에 반해 <서귀본향본풀이>는 제주도 남단 서귀포 일대의 몇몇 마을에서 전승되는 당신본풀이로, 제주도 당들의 위상으로 볼 때 그다지 주목을 받는 신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승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고, 신의 위상이 위의 <송당본풀이>처럼 여러 당신들의 뿌리가 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일찍이 1937년 아카마쓰·아키바의 《조선무속의 연구》에도 그 자료가 조사 채록되어 수록되어 있으며, 장주근 또한 <송당본풀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당신본풀이로 꼽고 있을 정도로 신화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귀본향본풀이>가 이처럼 중요한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로 주목받는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는 <서귀본향본풀이>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의 파격성 때문이다. <서귀본향본풀이>는 우리 신화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신화이다. 그것도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처제와의 불륜 관계를 설정한 삼각관계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소 파격적이기까지 한 신화 내용은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둘째는 일문관 바람운이라는 남주인공의 인물 명칭과 그 성격 때문에 주목받는 측면이 있다. 바람운에 대해 아카마쓰와 아키바의 《조선무속의 연구》에서는 바람운의 위엄을 내보이는 묘사를 하면서 천문과 지리에 능통하고 구름을 잡아타는가 하면 풍운조화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⁶⁾ 자연신적인 존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그가 고산국을 피해 제주도로 도망할 때의 행적에서도 보면 자연신으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남을 볼 수 있다. 곧 풍운조화를 일으키며 안개를 피워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도록 하여 고산국이 자신들을 찾지 못하게 하는데, 바람운의 이런 성격 자체가 바로 자연현상을 인격화시킨 모습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측면이 있다.

셋째는, <서귀본향본풀이>에는 그 신화 말미에 마을신들 간의 갈등에 따른 신앙민들의 관계 설정 및 금기가 잘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리노프스키의 기능주의 신화적 관점을 잘 보여주는 적절한 범례로 이해되기도 한다. 곧 신들의 갈등에 따라 신앙민들이 지켜야 할 금기가 제시된다. 결혼이나 우마 교미의 금지, 사람의 왕래를 금지하고 나무를 못 베어가게 하는 등의 금기가 신화에 장황하게 제시되고,⁷⁾ 이에 따라 지역민들 간의 갈등 관계가 두드러지게 야기된다는 점에서 신화가 사회를 통제하고 규범화시킨다는 말리노프스키의 기능주의 관점에⁸⁾ 그대로 부합되는 양상이다.

이렇듯 <서귀본향본풀이>는 제주도 내에서 전승 규모나 신의 위상 등의 측면에서는 존재적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신화내용을 비롯한 그 내면에 담겨있는 여러 요소들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마을신화라고 파악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2. <서귀본향본풀이> 내용의 파격성

<서귀본향본풀이>는 지금까지 아카마쓰·아키바, 진성기, 장주근, 현용준 등에 의해 박봉춘 심방을 비롯한 7명의 심방으로부터 채록한 자료 10편이 정리되어 소개된 바 있다.⁹⁾ 이런 <서귀본향본풀이>의 채록본들은 인물의 설정이나 서사적 전개 양상에 있어 전반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각편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나 근본, 당신화의 구성 및 전개 등에 있어서는

6) 赤松智城·秋葉隆(심우성 역), <서귀본향당본풀이>, 『조선무속의 연구』(상), 동문선, 1991. 213쪽.

7)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건』, 민속원, 1991. 506쪽.

8) 말리노우스키, 서영대 역, 『원시신화론』, 민속원, 2001.

9) 지금까지 채록된 <서귀본향본풀이>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채록 각편들 중 가장 장편이고, 서사적 구성이나 금기의 제시 등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서흥리본향>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자료는 서흥리의 당신인 고산국이 중심이 되어 서사가 전개되는 점에서 기존에 주로 소개되었던 서귀·동흥리의 자료와 비교하기에도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일문관 바람웃도(바람운)라는 한 중의 자식이 중국으로 유람을 갔다. 중국에서 한 고관대작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바람운은 그 집 딸을 보고는 그 아름다움에 반해 연정을 품게 되고, 대신(大臣)에게 청혼을 하여 승락을 얻게 된다. 하지만 혼례를 치루고 신방에 들어가보니 자기가 반했던 여인이 아닌 천하에 박색인 다른 여인이 방안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바람운은 기가 막혀 잠도 못 이루고, 다음날 어찌된 정황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녀에게 물으니 자신이 좋아했던 여인은 바로 자신과 결혼한 여자의 동생이었다.

어느 날 밤 바람운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뜰에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자신이 그렇게 흠모했던 처제를 만나게 된다. 둘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다가 바람운이 용기를 내어 함께 야반도주를 하자고 제안했고, 처제도 그 제안에 동의하여 둘은 머나먼 제주섬으로 도피를 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아내인 고산국이 남편을 찾으니 남편이 잠자리에 든 흔적이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동생을 찾아보니 동생 또한 함께 사라진 것을 알았다.

고산국이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축수를 하자 그들이 제주섬으로 도망한 것이 보였다. 고산국은 천근이나 되는 무쇠 활과 백근의 무쇠 화살을 메고는 축지법을 써서 그들을 뒤쫓아 나섰다. 고산국의 추적이 점점 가까워지자 바람운은 비바람을 일으키고 안개를 피워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게 했다. 그러자 고산국은 닭 모양의 구상나무의 가지를 꺾어 쓰다듬으니 나무닭이 울면서 화를 치고 세상이 점차 밝아졌다. 안개와 어둠이 걷히자, 한쪽 편에 남편과 동생 둘이서 숨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고산국이 천근 활을 그들에게 겨누니 둘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고산국이 생각하나 바람운은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고 지산국은 자신의 친동생인데, 차마 죽일 수는 없었다. 고산국은 일단의 노여움을 풀고는 그 곳에 정착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인간이 사는 곳을 찾아 내려오다가 김봉태를 만나 인도를 받고, 거기에서 고산국이 “너희와는 따로 갈라 설 수밖에 없다. 땅도 가르고 물도 가르고 인간도 가르자.”라고 했다. 바람운과 지산국이 동의하여 고산국은 돌을 넣어서 던지는 뽕개로 차지할 땅을 정했고, 바람운은 화살을 쏘아서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땅을 정해서 각기 서흥리와 서

	구연자	채록자	자료명	수룩자료집명	수룩년도
가)	박봉춘	赤松智城·秋葉隆	서귀본향당본푸리	『조선무속의 연구』(상)	1937
나)	박생옥	진성기	서귀본향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다)	김홍님	진성기	서귀본향2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라)	김기생	진성기	서귀본향3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마)	김영식	진성기	서흥리본향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바)	박생옥	진성기	홍로본향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사)	김화춘	진성기	홍로본향2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아)	박생옥	장주근	서귀리본향본풀이	『한국의 민간신앙』(자료편)	1973
자)	박기석	현용준	西歸·東烘本鄉堂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차)	박생옥		서귀리 본향본풀이	『제주도무가』(소장음반시리즈)	2008

귀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사죄하는 동생에게는 용서하는 대신 자매의 연을 끊자며 성(姓)을 바꾸도록 하여 지산국이 되게 했다. 고산국은 그러면서 “너희가 차지한 인간까지도 내게는 적이다. 너희가 차지한 곳의 인간들과 내가 차지한 인간과는 혼인도 못할 것이고, 너희의 인간은 내가 차지한 땅의 나무도 못 베어간다.”라고 하여, 서로 땅을 가르고 물을 갈라서 두 마을은 서로 거래나 왕래를 하지 않았고, 서로 간 왕래가 있다고 해도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¹⁰⁾

장주근은 그의 저서 『풀어쓴 한국의 신화』에서 제주도의 마을신화를 다루면서 <서귀본향본풀이>에 대해 “낭만적인 서귀본향본풀이”라고 명명했다. 우리 신화에서 드물게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는 신화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덧붙여 서귀리 앞바다에는 섬들이 그림처럼 떠있고,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등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어 이런 로맨틱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신화가 출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¹¹⁾

실상 우리에게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삼은 신화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것도 단순한 사랑을 담은 것도 아니고 처제와의 불륜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소재이며, 우리의 정서에 부합한다고보다는 그리스 로마신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신화 모습인 것이다.

1980년대 <이브의 건넌방>이라는 정을병의 장편소설이 있었다. 처제와의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다뤘다고 해서 당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소설은 변장호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제작되면서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는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처제와의 불륜을 다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이렇듯 1980년대에도 사회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던 처제와의 불륜이라는 소재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는 마을신화로 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신화에서 처제와의 불륜이 등장하는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우가 조금은 다르지만 그리스의 테레우스신화가 형부가 처제에게 반해서 생기는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테레우스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 위험에 처한 아테나이를 도와 전쟁을 아테나이의 승리로 끝나게 했다. 이에 아테나이의 왕 판디온은 테레우스에게 감사의 뜻으로 자신의 딸 프로크네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지만 신들의 축복보다는 복수의 여신 에리倪에스가 그를 찾았을 뿐 신들의 축복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곧 아들 이튀스도 태어났다.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프로크네는 동생 필로멜라가 너무 보고 싶으니 아테나이로 보내달라고 남편 테레우스에게 간청했다. 테레우스는 아내를 보내는 대신 자신이 아테나이로 가서 처제인 필로멜라를 데려오겠다고 하여 배를 타고 출발했다.

아테나이의 궁에 도착한 테레우스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처제 필로멜라를 보고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속마음을 감춘 채 언니 프로크네가 동생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니 필로멜라를 트라키아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판디온 왕에게 부탁했다. 판디온왕은 큰딸이 동생을 보고 싶어한다는 말에 왕의 망설이다가 승낙을 했다. 테레우스는 곧 필로멜라를 데리고 트라키아로 떠고, 트라키아에 도착하자 테레우스는 필로멜라를 숲속에 있는 오막살

10) 진성기, 같은 책, 501~506쪽 요약.

11) 장주근, 같은 책.

이로 데려가 가두었다. 그리고는 욕정을 채운 뒤 그녀가 아무에게도 사실을 말할 수 없도록 혀를 잘라 버렸다. 테레우스는 필로멜라를 그곳에 감금해두고 돌아와서는 태연히 프로크네에게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필로멜라는 옷감을 짜서 자신이 당한 사연을 거기에다가 수를 놓아 왕비에게 전달하도록 하녀에게 부탁했다. 프로크네는 동생이 보내온 옷감을 보고는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디오니소스 제전이 다가오자 프로크네는 바코스 신도로 변장하고는 숲으로 가서 필로멜라가 갇혀 있는 오막살이를 찾아갔다. 동생과 만나 남편의 만행을 낱알이 알게 된 프로크네는 분노에 치를 떨며 복수를 다짐했고.

그녀는 동생을 궁으로 데려온 다음 테레우스를 꼭 닮은 아들 이튀스를 죽였고, 두 자매는 아이의 사체로 요리를 해서는 특별한 요리라고 하면서 테레우스의 식탁에 내놓았다. 테레우스는 자신의 아들의 살로 만든 요리인지도 모른 채 맛있게 먹고는 식사가 끝나자 아들인 이튀스를 찾았다. 그러자 프로크네는 그 아이는 당신의 뱃속에 있다고 하였고, 필로멜라가 나타나 이튀스의 잘려진 머리를 테레우스 앞에 내밀었다. 두 자매는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하고, 테레우스는 자멸하고 만다.¹²⁾

이 부분의 뒤에 테레우스를 피해 도망하던 프로크네는 나이팅게일로 변하고, 필로멜라는 제비로 변했으며, 뒤쫓던 테레우스는 매로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덧붙이기도 한다.

테레우스신화는 아내의 아름다운 동생을 보고는 마음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서귀본향본풀이>와 같지만 쌍방 간의 사랑이 아닌, 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사랑이다. 때문에 그 결과는 처제를 외딴 곳에 가둬두고 욕망을 채우는 행태로 나타나고, 처제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 혀를 자르는 가혹한 행위가 수반된다. 하지만 그 사실이 결국 언니에게 알려지고, 언니가 동생의 복수를 위해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시켜 남편이 먹도록 한다. 남편의 추악한 형태에 대한 잔인한 결과가 수반된다. <서귀본향본풀이>처럼 처제를 좋아하는 것이 발단이 된 내용 전개이지만 사랑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름답기보다는 아주 추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결말 또한 잔인하기 그지없게 전개된다.

그러나 <서귀본향본풀이>는 다르다. 물론 처제와의 불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추하게 묘사되지는 않는다.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도피를 택한다. 처제와의 불륜이기에 본처와의 갈등이 피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잔인한 복수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함께 도망해서 숨어있는 바람운과 동생 지산국에 대해 고산국은 측은함을 느끼기도 하고, 용서하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동생의 성을 바꾸도록 하여 절연을 선언하고 땅을 갈라 서로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거나 관계 맺는 것을 금지하는 금기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 바탕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 그래서 <서귀본향본풀이>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는 처제와의 사랑을 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그렇다고 추하거나 잔인한 복수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며, 나름의 낭만적인 사랑이야기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3. 같으면서도 다른 <서귀본향본풀이>의 자료 양상

서귀본향계 본풀이¹³⁾는 신들의 갈등과 대립이 두드러지는 자료이다. 바람운이 처제인 지산

12)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신화』, 웅진, 2015. 192~208쪽 요약.

국과 함께 도망하면서 생긴 갈등이 당신본풀이에 잘 나타나며, 그들 신들이 다스리는 지역 간에도 통혼이나 왕래금지 등 금기가 제시되는 등 그 대립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세 신격 간의 갈등을 담은 채 동일한 본향본풀이를 공유하면서 각각의 당에서 불려지고 있다는 점이다.¹⁴⁾

서귀리와 동흥리를 차지한 바람운과 지산국, 서흥리를 차지한 고산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당신본풀이의 전승을 기반으로 하기에, 당본풀이에서의 그 대립양상이 신앙지역에 따른 당신본풀이의 성격이나 관점의 변화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채록된 자료들은 대체로 서귀리를 중심으로 채록이 이루어졌고,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서흥리의 당본풀이는 진성기가 서흥리의 남무인 김영식으로부터 채록한 <서흥리본향>이 유일하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채록된 <서귀본향본풀이> 중 가장 장편의 본풀이이고, 고산국의 능력이 특히 강조되는 당신본풀이이다. 때문에 고산국을 섬기는 이 자료를 중심에 두고 그 대립 관계에 있는 바람운과 지산국을 섬기는 서귀·동흥리의 본향본풀이와는 그 양상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진성기의 채록자료 중에 서흥리의 여무인 김화춘이 구연한 <흥로본향>이 있는데, 이 자료는 “동흥리 토주본집 지산국한집 난산국한집 올렸수다”라고 하여 동흥리를 관장하던 지산국을 모시는 당신본풀이를 구연하고 있음에도 실상은 서흥리의 심방답게 서흥리의 당신본풀이를 그대로 구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료가 서흥리 당신본풀이와 동일한 양상의 자료라는 점은 김영식본과의 비교를 통해보면 쉽사리 파악할 수 있다. 곧 서흥리의 당신인 고산국을 중심에 두고 고산국 위주로 당신본풀이가 전개되고 있으며, 서흥리의 당신인 고산국을 모시는 당본풀이에 그저 동흥리 당신을 모시는데 알맞게 난산국을 서술하는 첫머리와 섬기는 신격을 제시해 마무리 짓는 끝부분만 바꾸어 삽입했을 뿐 그대로 서흥리 본향본풀이를 구술하는 양상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비록 동흥리의 당신본풀이 채록본이지만 김영식본과 함께 서흥리의 당신본풀이로 파악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면 앞서 내용을 요약한 김영식 구연 자료를 중심으로 서귀리 중심의 채록자료인 박봉춘, 박생옥, 박기석 등의 채록자료와 비교하면서 대립관계의 신을 섬기는 마을에서는 서로 각기 어떤 양상으로 자신들이 모시는 신격을 신화로 꾸미고 구연하는지 비교하여 살피도록 하겠다. 우선 그 비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 항목	서귀·동흥리 본향본풀이	서흥리 본향본풀이
주요 대상자료	서귀본향당본풀이, 서귀본향1, 서귀리본향본풀이, 서귀·동흥본향당	서흥리본향, 흥로본향 ²⁾
주요 제보 심방	박봉춘, 박생옥, 박기석	김영식, 김화춘
본풀이의 대상 주체	바람운과 지산국	고산국
결연과정 및 도피과정	바람운과 박색인 고산국의 결연 및 지산국과의 도피과정이 간략히 압축된 형태	바람운과 고산국의 결연 및 지산국과의 도피과정이 크게 확장되어 나타남

13) 서귀본향계 본풀이는 서귀리, 동흥리, 서흥리 등에서 바람운과 지산국, 고산국의 세 신을 중심으로 각기 불려지는 서귀리본향, 동흥리본향, 서흥리본향 등의 당신본풀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14) 신의 관계가 주민들의 생활에 반영된 사례는 고헌민의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이라는 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2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83.)

신의 능력	천근활과 백근살을 사용, 안개를 피우는 도술 등 바람운의 능력 및 위엄 강조	대축기 활용, 축지법, 천근활과 백근살 사용, 어둠으로부터 개명시키는 등 고산국의 능력 강조
신의 차례	지산국에 대한 차림새 차례, 바람운의 차림새 및 위엄을 장황하게 묘사	없음
좌정 과정	a. 바람운이 김봉태를 통해 인간처로 좌정하고자 함, b. 뽕개를 쳐서 떨어진 곳으로 세 신이 각기 좌정함	a. 고산국이 김봉태를 통해 인간처로 좌정하고자 함, b. 뽕개를 쳐서 고산국과 바람운만 좌정처를 잡고, 지산국의 좌정처는 고산국이 따로 잡아줌
금기의 제시	고산국이 제시한 금기를 받아들이는 식의 계약	고산국의 일방적인 금기 제시, 금기를 어긴데 대한 징치

이렇게 핵심적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한 것을 토대로, 어떤 신을 섬기는가 하는 신앙권역에 따라 동일한 본향당본풀이가 어떻게 다른 내용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첫째, 당신본풀이 전개의 주체가 되는 신격 문제이다. 서귀·동홍리의 본향본풀이는 당연히 바람운과 지산국이 주체가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김봉태를 만나 인간처로 내려온다거나 뽕개를 쳐서 좌정처를 선택하는 것도 바람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서홍리의 본향본풀이에서는 고산국이 당본풀이 전개의 중심에 놓이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김봉태를 만나서 인간처로 내려오거나 후에 좌정처를 정하는 부분, 그리고 금기의 제시 등 전반적으로 고산국이 주도권을 쥐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당신의 신앙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신격 존재부터 달리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바람운과 고산국의 결연 및 지산국과의 도피과정이다. 서귀·동홍리의 본향본풀이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약화시켜놓은 것이 특징이다. 아카마쓰·아키바의 채록본을 제외하고는 공통되게 고산국이 아주 박색이어서 처제인 지산국과 눈이 맞아 도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만 이 부분을 장황하게 서술하지 않고 단편적이고도 압축적으로 묘사해놓고 있는 양상이다. 그에 반해 서홍리 본향본풀이에서는 바람운과 고산국의 결연과정이 아주 장황하게 서술된다. 서울 중의 자식인 바람운이 중국 유람을 갔다가 대사(大使)집에서 유숙을 하면서 그 집 딸인 고산국과 결연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바람운이 처제인 지산국과 좋아하게 되어 제주도로 도피하는 과정이 서사적으로 크게 확장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이 신들이 제주도로 입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서귀·동홍리 본향본풀이가 축약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당신이 부도덕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치로도 볼 수 있다.

셋째, 신의 능력 부분이다. 서귀·동홍리 본향본풀이에서는 바람운의 능력이 강조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박봉춘 구연본은 바람운과 지산국이 도술도 능하고 내린 어둠도 견히게 하는 등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고산국은 무능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 외의 채록본에서는 지산국의 능력은 거의 묘사되지 않고 바람운의 위엄이 대단하고 천근활과 백근살을 사용하며 김봉태를 만나거나 좌정처를 잡는데 있어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어둠으로부터 구상나무 가지로 닭을 만들어 천지개명(天地開明)을 시키는 존재는

박생옥본의 경우는 고산국이 하는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여 바람운의 행위로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편 서흥리의 본향본풀이에서는 고산국의 능력이 한껏 강조된다. 대축기를 불러 바람운과 지산국이 달아난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축지법을 써서 제주도에 당도하며, 바람운이 피운 풍운조화와 어둠을 구상나무 가지로 닭을 만들어 세상이 밝아오도록 한다. 그리고는 바람운과 지산국을 찾아내어 천근 활과 백근 살로 징치하려다가 바람운과 지산국은 찢찢 매며 용서를 빌자 차마 죽이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도살안개가 걷어젼
정신을 출련 보난
저 끝뎡이에 돌이가
앗앗구나
아나, 나쁜 역적 놈아
쌀 받아라
그젠 돌이 업드리고
살려줍서
훈스 빌어.
생각을 흐여 보니
역적이지마는 나의 남편인디
죽일 수가 엇고나¹⁵⁾

이처럼 고산국에게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나중에 좌정처를 정함에 있어서도 지산국이 갈 곳을 몰라 하니 고산국은 지산국의 좌정처까지 잡아주는 등 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이 뚜렷하다. 아울러 서귀·동흥리 사람들에게 금기를 내리고 그 금기를 어긴 사람들에 대해 징치하는 모습의 영험담까지도 곁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신앙지역에 따라 동일한 당신본풀이라 하더라도 신들의 능력과 권위가 완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신의 모습에 대한 차례 대목으로, 서흥리의 본향본풀이에서는 고산국의 옷단장이나 장식 차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서귀·동흥리 본향본풀이에서는 바람운과 지산국의 옷단장을 비롯한 치장 모습이 장황하고 화려하게 묘사되는 양상이다. 이 점은 박생옥 구연본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부인님은
물맹지 곱바지에
갱맹지 단속옷
열두폭 금새호리 홀단치매
...
부람운님은
남방사주 합바지에
붕애바지 저고리에
머리올려 감상통

15) 진성기, 앞의 책, 503쪽.

...16)

박생옥 구연본에서는 이처럼 뒷부분에 약 40여 행에 걸쳐 지산국의 옷단장 및 바람운의 치장 모습을 장황하게 묘사해 내려가고 있다. 이런 치례가 나타나는 그 외의 채록본으로는 아카마쓰와 아키바의 채록본이 있다. 여기에는 첫머리에 바람운의 소개 형태로 옷단장 및 활로 삼천군병을 다스리는 바람운의 위엄을 내보이고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서귀·동흥리 본향본 풀이는 이렇게 섬기는 당신들에 대한 화려하고 위엄있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신을 숭앙하는 당신본풀이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좌정 과정이다. 서귀본향계 본풀이에서는 좌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김봉태이다. 신을 알아보고 인간처로 모셔가는 존재로, 서귀·동흥리의 본향본풀이에서는 공통적으로 바람운이 김봉태를 만나 인간처로 내려가 좌정할 곳을 찾게 되는 반면 서흥리 본향본풀이에서는 고산국이 김봉태의 인도를 받아 인간처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신본풀이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서귀본향계 본풀이에서는 실제의 좌정처를 정함에 있어 뽕개를 쳐서 떨어진 곳에 좌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귀·동흥리 본향본풀이에서는 바람운과 지산국, 고산국 등 세 신이 각기 뽕개를 쳐서 좌정처를 잡는 양상이라면, 서흥리 본향본풀이에서는 바람운과 고산국만이 각기 뽕개를 쳐서 좌정처를 잡고, 지산국은 좌정할 곳을 몰라 고산국에게 사정하니 고산국이 그 청을 들어 지산국에게 좌정처까지 잡아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좌정과정에 있어서도 서로 상반된 관념을 반영해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나쁜 동심 갈 딛 었다.
내 갈 디를
성님이 7리쳐 줘서.
너는 갈 디 나는 몰른다.
그젠 혼스 잘 못흔
굴복을 올리니,
성님 생각은 ㅎ연 보니,
아시가 불쌍 ㅎ여,
기영 ㅎ건, 너가 성을 개부해라.
경 ㅎ민 내가 너 갈 질을
7리쳐 주마.¹⁷⁾

마지막 여섯째로는 금기의 제시이다. 이 부분은 고산국에 의해 제시되는 일방적인 금기이며, 이것을 바람운과 지산국이 그저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곧 서귀·동흥리 본향본풀이에서는 이런 금기의 제시를 계약으로 파악한다.

동서흥리 서귀간에
이제랑 서로 사둔도 아녀곡

16) 위의 책, 498쪽.

17) 위의 책, 504~505쪽.

물¹⁸쉬도 아니바꾸곡
쇠¹⁹쉬도 아니바꾸기로
계약이 되니우젠
...18)

이에 반해 서흥리 본향본풀이에서는 그 양상 및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네 촌지훈 인간¹⁹지 내게는 적이다”¹⁹⁾라며 그 지역민들에게 금기를 제시하는데 인간들이 그 금기를 어기자 징벌을 내리고, 이에 바람운과 지산국은 고산국에게 가서 사과하면서 “나 ㅎ고 당신 ㅎ고사 적이 됐건마는 분쉬 물론 인간이 무신 죄가 있소?”²⁰⁾하며 사정을 한다. 서귀·동흥리의 본향본풀이에서는 서로 간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서흥리 본향본풀이에서는 일방적인 통보이며, 반드시 따라야 할 금기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서흥리 지역 당본풀이에는 서귀·동흥리의 당신본풀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금기를 어겼을 시 당신의 위력을 발휘하는 영험담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면모이다. 이런 금기의 제시 및 위반 시 징치는 동생에게 남편을 빼앗긴 고산국의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심리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서흥리 본향본풀이에서는 당신의 위력을 보여주는 영험담까지 추가되면서 이 부분이 확장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²¹⁾

이렇게 볼 때 신앙권역에 따라 동일한 당신화가 어떻게 달리 전개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다. <서귀본향본풀이>는 서귀리, 동흥리, 서흥리 등 세 마을이 공유하던 신화이다. 그런데 신들 간에 편이 갈리고 대립함에 따라 이들 마을에서도 신화에서 신들을 대변하는 입장이 다르게 되었다.

서귀리와 동흥리는 부부로서 화합관계에 있는 바람운과 지산국이 자리잡고 있다. 반면 서흥리는 본처였으나 버림을 받아 이들과 큰 갈등 및 대립을 보이는 고산국이 당신으로 좌정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동일한 당신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대립관계의 성격이기에 당신화를 서술해 나가는 시각이나 신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서로 갈등관계의 신들을 섬기는 마을이기에 신의 설정 및 내용 전개가 동일한 당신화를 공유하면서도 신앙권역에 따라서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신의 성격이나 능력, 신의 치레나 금기의 제시를 비롯한 본풀이의 구성 요소, 사건의 확장 및 압축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당신화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인물의 설정이나 사건의 전개가 유사하게 전개될 뿐이며, 신앙지역에 따라 각기 믿는 신의 관점에서 당신본풀이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곧 신들 간의 갈등에 따른 입장이 다르다 보니 사제자인 심방이나 신앙민들은 각기 그 대상 신의 입장에서 신화를 구성 및 정리하게 되고, 때문에 그 신화 양상은 같으면서도 다른 신화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4. <서귀본향본풀이>에서 찾은 일반신본풀이의 흔적

18) 위의 책, 498쪽.

19) 위의 책, 505쪽.

20) 위의 책, 505쪽.

21) 권태효, 「제주도 서귀본향계 본풀이의 자료적 성격과 양상」, 『한국신화의 재발견』, 새문사, 2014. 116~124쪽.

다수의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는 육지의 자료들과 연결되어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샤만이본풀이>,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 등 다양한 자료들이 육지의 자료들과 연계선상에 있으며, 때문에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는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신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육지의 자료와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의 토착신화인 당신본풀이와 긴밀하게 결합되면서 육지신화와는 다른 나름의 독자적인 신화적 양상을 보여주는 형태이다.

예컨대 제주도의 농경신화인 <세경본풀이>는 고전소설 <양산백전>과 함경도의 <문굿> 등과 남장여인의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보이는 신화이다. 하지만 그 내면의 실상은 판이하다. 인물 설정에 있어, 주체가 되는 문도령과 자청비 이외에 정수남이라는 별개의 인물을 설정하여 <송당계본풀이>의 소로소천국과 백주또의 성격을 대입하고 있다. 아울러 스토리상에서도 문도령과 자청비가 헤어진 이후 자청비가 하늘에 올라가 공을 세우는 형태의 천상무용담이 펼쳐지고 있어 <송당본풀이>의 자신(子神)인 괴뇌깃도 해중무용담에 대응하는 독특한 설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비록 소재의 차용은 있었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나름의 독자적인 신화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²²⁾

<서귀본향본풀이>는 <송당본풀이>처럼 그것의 파생이 전도(全島)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신화가 아니다. 서귀리와 서흥리, 동흥리 등 아주 한정된 지역에서 공유되던 본풀이이다. 하지만 <서귀본향본풀이>에서도 일반신본풀이인 창세신화 <천지왕본풀이>의 면모를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사항이다. 그 관련 양상을 제시해보면 다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서귀본향본풀이>에서는 고산국 혹은 바람운이 구상나무 가지를 꺾어 그것으로 닭을 만들어 어둠과 안개로부터 개명천지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천지왕본풀이>에서의 천지개벽 신화소와 맞물리는 대목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태초에 세상이 열리는 데에 있어 천황닭, 지황닭, 인황닭이 화를 치면서 천지가 개벽되는 형태를 보인다. 비록 서귀포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둠 또는 혼돈으로부터 세상이 밝아오도록 하는 신화소가 아울러 담겨 전승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로는 고산국과 지산국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원래 형이 차지해야 할 것을 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는 형태로, 이 점 또한 <천지왕본풀이>와 <서귀본향본풀이>는 서로 일치하는 양상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형이 차지해야 할 이승을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빼앗는데, 비록 속임수는 개입되어 있지 않지만 지산국이 언니와 결혼한 형부를 빼앗아 달아난다는 점은 분명 그 의식상 상통하는 면모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신화 모두 형이 탁월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 동생에게 인세나 남편을 빼앗기게 되며, 그럼에도 결국에는 동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형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일치하는 양상이다. 곧 소별왕이 인간세상의 혼란을 대별왕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게 되는 것처럼 지산국이 좌정처를 잡지 못해 사정하니 그 좌정처를 고산국이 잡아주는 모습도 닮아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귀본향본풀이>에서의 영토를 가르치는 모습은 <천지왕본풀이>에서 이승과 저승이 분할되는 양상과 흡사하다. 특히 이런 신들의 갈등에 따른 분할로 인해 그 이전까지는 서로 자유롭게 왕래 또는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 엄격하게 분리되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 법에 따라 통제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서귀본향

22) 권태효, 「제주도 무속신화의 생성원천에 대한 일고찰」,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본풀이>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당신본풀이에 불과하지만 일반신본풀이, 그것도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와 여러모로 흡사한 양상을 보이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²³⁾

<천지왕본풀이> 또한 육지와 연계성이 있는 자료이다. 오산의 <시루말>, 함경도의 <생긋> 등 육지의 창세신화와 내용상 다양한 측면에서 상통되고 있지만, 이들 자료와는 또 다른 나름의 독자적인 신화적 특성과 내용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²⁴⁾

그런데 이런 제주도 신화적 특성은 한편으로 제주도 마을신화인 <서귀본향본풀이>와 연계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천황담, 지황담, 인황담이 뉘를 치면서 천지가 개벽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든가 우월한 능력을 지닌 형이 본래 자신의 것이 될 것을 동생에게 넘겨준다거나 하는 것은 육지신화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서귀본향본풀이>에서 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천지왕본풀이>와 <서귀본향본풀이>가 서로 직접적인 영향 수수관계 속에서 생성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신본풀이인 <천지왕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인 <서귀본향본풀이>는 여러모로 모티프상 연계성이 확인되고, 따라서 전승과정상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들을 포함해 큰 틀에서 볼 때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신화는 서로 별개가 아니다. 신화 장르를 넘어서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세경본풀이>나 <사만이본풀이>처럼 직접적인 연계 양상을 보이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²⁵⁾ 이 글에서 유사성을 다룬 바와 같이 <천지왕본풀이>와 <서귀본향본풀이>처럼 전승과정상 자연스럽게 공통화소를 공유하면서 이면의 내용을 구성하는 신화 형태가 있는 셈이다.

5. 마무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귀본향본풀이>는 비록 제주도 남단의 일부 마을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지니는 신화적 가치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서귀본향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도신화가 지니는 가치를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우선 가장 주목할 점은 자생적 토대의 신화적 바탕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분류되는 제주도신화는 비록 일반신본풀이의 많은 자료가 육지와 접점을 갖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당신본풀이와 같은 토착적인 신화적 배경 속에서 흡수하고 소화되어 자생적인 신화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신본풀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일반신본풀이의 변화양상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지만 <서귀본향본풀이>처럼 기본적인 세계관이나 모티프 등이 기저에 작용하면서 제주도 나름의 신화적 틀이나 스토리 전개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신화의 다양한 세계관이 잘 응축되어 두루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주도신화의 가치는 단연 돋보인다. <서귀본향본풀이>에서 바람운이라는 신명(神名)이 자연신을 형상화 시켜놓은 양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동일한 내용의 신화가 마을신의 갈등에 따라 어떻게 각

23) 권태효, 「제주도 서귀본향계 본풀이의 자료적 성격과 양상」, 『한국신화의 재발견』, 새문사, 2014.

24) 김현진,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25) 권태효, 「제주도 무속신화의 생성원천에 대한 일고찰」,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기 다른 신화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전승되고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신들이 제시한 금기가 어떻게 신앙민들에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기능적 측면까지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양상은 <서귀본향본풀이>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예컨대 <송당본풀이>의 경우는 가지 갈라간 여러 자신(子神)들을 설정하면서 신들의 계보를 보여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신화는 세계 여느 지역 못지않게 다양한 신화 내용과 소재를 갖춘 채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귀본향본풀이>에서는 처제와의 파격적인 사랑을 소재로 내용으로 한 신화를 보여주는가 하면, 장황한 해중무용담이나 또는 천상무용담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창조, 죽음의 기원을 비롯해 농경의 기원, 굿법과 같은 의례의 기원 등 다양한 문화기원 신화소도 풍부하게 제주도신화에는 내포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귀본향본풀이>는 한정된 지역의 작은 신화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통해 스펙트럼을 넓혀 볼 때 제주도신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 제주도가 왜 신화의 고장인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2002.
- 강정식,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당신앙 연구」, 『한국무속학』제6집, 한국무속학회, 2003.
-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2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3.
- 권태효, 「제주도 무속신화의 생성원천에 대한 일고찰」,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 권태효, 「제주도 서귀포향계 본풀이의 자료적 성격과 양상」, 『한국신화의 재발견』, 새문사, 2015.
-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9.
-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김헌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구성과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6.
- 김화경, 「서귀포분향당 본풀이의 구조분석」, 『구비문학』5, 정문연, 1981.
- 문무병, 『제주도 분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신화』, 웅진, 2015.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 장주근,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자료편), 금화사(동경), 1973.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진성기, 『남국의 무속』, 형설출판사, 1987.
-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1986.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음반시리즈 43, 『제주도무가』,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말리노우스키, 서영대 역, 『월시신화론』, 민속원, 2001.
- 赤松智聖·秋葉隆(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상), 동문선, 1991.